

## 1222(목) 요한삼서 1장 진리 안에서 행할 것

요한 삼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(219개 단어).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책이지만, 편지의 수신인인 가이오는 복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깊이 체화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

(1:1-4)

당시 순회선교사들이나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들은 ‘예수’의 이름으로 인해 각종 위험에 노출되며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.

교회는 전도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한마음, 한뜻으로 환대하며 보호하고 섬겼습니다. 사도들은 2일,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최대 3일 정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. 서로의 사역과 섬김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규칙들이었습니다(디다케).

가이오는 좀 더 ‘너그럽게’ 그들을 섬겼습니다. 예수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진심어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(1:5-8). “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(요일 3:18)”

요한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 <사랑>을 기뻐하면서, 더불어 진리 안에서 <단호할 것>에 대해 권합니다. 사랑이라는 명분 안에 잘못이 방치되지 않도록 죄와 악을 단번에 끊을 것을 당부합니다.

(1:9-11)

복음이 나의 온 몸에 체화되었습니까?

- ❶ 이해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?
- ❷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과 단호할 것을 분별합니까?